

‘먼지 날린’ 업체 49곳 적발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억제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지방경찰청 등은 지난 3월부터 관내 건설업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천123개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해 49개 업체를 적발했다. 특히 광주지역 사업장 위반율은 5.7%에 달해 전국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군 삼호읍 D업체의 경우 지난 5월7일 운전차량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고발됐으며, 장흥군 회진

면 B업체는 지난 4월28일 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장흥군 대덕면 E업체의 경우 지난 4월11일 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아 고발됐으며, 영암군 삼호읍 D업체는 지난 3월28일 운전차량 세륜시설을 운영하지 않아 적발돼 조치 이행명령이 내려졌다.

적발된 49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6곳은 고발조치 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에서 9개 업체, 장흥·영암·순천 등에서 40개 업체가 적발됐다.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원산지 표시 감시 수입산 쇠고기를 비롯, 음식물 원자재의 원산지 표시가 강화된 가운데 24일 오후 농산물 품질관리원 소속 주부 명예감시단이 광주시 남구 한 식당의 메뉴판을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 회원,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 촉구 농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옛 전남도청 건물 원형 보존을 주장하며 건립 예정지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5·18 관련 단체 회원 30여명은 24일 오후 옛 전남도청 건물 앞에서 “전남도청 건물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존이자 상징적 공간으로 원형 그대로 보존돼야 한다”며 “철거 계획

을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청 본관과 이어진 도청 별관 건물은 5·18의 역사적 공간으로 이를 철거하겠다는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의 현 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진기획단 관계자들이 이들의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이종행기자 golee@

보육시설·50명 미만 학교, 부처 자율 규제에 맡겨

원산지 미표시 제재 방법 없다

정부가 24일 쇠고기 원산지 표시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소규모 학교와 보육시설은 제대로 적용을 받지 못할 것이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지역의 경우 50인 미만 소규모 학교는 초등학교 109개, 중학교 54개, 고등학교 5개교가 있다. 소규모 보육시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쇠고기 원산지법 민사2단독 김규태 판사는 H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인 황모 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족들에게 보험금 8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자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앞세워 온 보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연필뉴스

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소규모 학교 및 보육시설 급식소들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된다. 예를 들어 40명의 유아에게 급식을 하고있는 어린이집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영업에 지장이 없다는 뜻이다.

교과부는 이미 50명 미만에게 급식을 하고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행정지침을 전달했고 복지부도 전국 보육시설에 같은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지만 향후 실효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무런 제재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들이 원산지 규정을 완벽하게 지키려나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집단급식소의 자격 규정을 완화하거나 시행령을 고쳐 50인 미만 급식시설도 원

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지만 농림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와 복지부의 인식도 다소 안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50명 미만 유치원과 학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입장이다.

또한 복지부는 가정통신문으로 원산지를 표기한 주간 메뉴를 부모에게 안내하도록 지침을 하달하면 대부분 보육시설들이 따를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의 50인 미만 총 168개교 모두가 영양교사가 공동소매관을 철저히 하고 있고, 영양사가 100% 배치돼 검수시 매일 체크하게 돼 있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문제는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게임머니 구입자도 처벌

앞으로 온라인 고스톱이나 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사행목적으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상습 구매해도 처벌을 받는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행목적으로 게임머니 등을 상습적으로 구입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게임머니 등을 직업적으로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판매자만 처벌했다. /연필뉴스

암 고통 못이겨 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판결

암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부산지법 민사2단독 김규태 판사는 H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인 황모 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족들에게 보험금 8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자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앞세워 온 보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연필뉴스

먹구름 잔뜩 6월 25일 (음 5월 22일) 전국날씨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흐리겠다.

광주	구름 많음	19~26℃
포항	구름 많음	19~25℃
서울	구름 많음	19~23℃
대전	구름 많음	19~24℃
대구	구름 많음	18~26℃
부산	구름 많음	18~25℃
제주	구름 많음	18~24℃
울릉도	구름 많음	18~25℃
독도	구름 많음	18~24℃
인천	구름 많음	19~25℃
전주	구름 많음	18~25℃
광주	구름 많음	18~25℃
대전	구름 많음	19~25℃
대구	구름 많음	20~27℃
부산	구름 많음	19~27℃
제주	구름 많음	16~22℃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서해중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서해중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 06:16 썰물 < 11:43
 18:39 썰물 < 23:51
 여수 밀물 < 00:51 썰물 < 07:16
 13:22 썰물 < 19:13

▲해돋이 05:19 ▲해질 19:51 ▲달돋 23:47 ▲달짐 11:15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7/1(화)
날씨						
최저/최고	19/28	19/29	20/26	21/26	20/28	21/27

‘보훈의 달’ 마지막주 다양한 행사

보훈의 달인 6월 마지막 주에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광주·전남재향군인회는 25일 오전 11시 광주 시민회관에서 ‘6·25전쟁 제58주년 기념식 및 1등 광주 건설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박민 광주시의회의장, 문병민 광주지방보훈청장과 6·25 참전 유공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참전용사 포상, 현시 낭송, 우리의 결의 맹세 순으로 진행된다.

또 이날 오후 2시 광주시 광산구청에서는 ‘한말 호남의병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이날 한국보훈 선교단 호남지부도 오후 2시 광주 보훈병원 대강당에서 ‘제31회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를 연다. 각급 기관장과 종교계 인사, 국가유공자 등이 참석하는 기도회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추모와 나라사랑에 대해 기원한다.

광주지방보훈청은 오는 30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모범 국가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진행한다. 이날 전수식에는 국가유공자 26명에게 국가보훈처장상 등을 수여하게 된다.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꼭내영교육학

어른방학 기본 문제집이만 대특강

☎ 529-0090 개강 7월 4일

전공국어

No.7 & 5a

ANYCHE CHAIR

Anyche 기쁨과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자 전문 생산업체 - 포천에시제

보람상조와 함께 일 새가족을 모십니다

보람상조